

친노-비노 갈등 격화

盧대통령 “鄭·金 구태정치” 고강도 비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회동 내용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친노-친노(親盧)파와 비노(非盧)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결별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이 야합과 이합집산을 되풀이하는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김 전 의장은 창당정신이 실종된 정당을 사수하는 것이 야말로 무원칙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7일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힌 청와대 브리핑 글을 통해 우리 당 해체를 주장하는 두 전직 의장을 겨냥, “과연 당신들이 우리당 창당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이 맞느냐. 그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냐”라고 반문한 뒤 “제가 보기에 구태정치로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우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아도 해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노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관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당 해체 및 탈당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사실이 7일 정 전 의장 측에 의해 공개되자 나온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당시 “우리당이 2·14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신당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므로 지켜야 한다”는 김 전 의장의 말에 “당이 껍데기만 남으면 내가 복당해서라도 당을 지키겠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복당’ 발언과 관련, “노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김 전 의장이 탈당하겠다고 해 설득하려

鄭·金 “창당정신 실종 당 사수 이유 없다”

비노파 이달말, 중도파 내달중 탈당할 듯

한 말”이라며 “복당 검토를 지시한 바도, 계획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도 이날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김근태, 정동영,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허접한 정치꾼을 빨리 쫓아내야 한다.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쓸만한 재목들로 집을 고치면 되고 훌륭한 인재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대통령신당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는 ‘갈 테면 가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르고 한쪽에서는 뺨 때리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라며 “여론이 불리할 것 같으면 ‘대통령신당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잔패 정치”라고 맞받았다.

그는 야파트 분양원이 공개거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졸속타결, 대북송금 특검 등을 우리당 창당정신의 실종 사례로 거론한 뒤 “스스로 원칙과 명분을 파기하고 허울뿐인 당을 사수하는 게 가장 무원

칙하고 명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일각에서 2·14 합의 정신을 깨고 대선을 포기하려는 듯 한 패배주의적 발언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인간사 도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을 정점으로 하는 비노파는 이달 말, 재선 및 중도파 일부를 포함한 추가 집단탈당 세력은 현 지도부의 권한이 끝나는 내달 중순에 탈당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돼 우리당은 급속히 분화 내지 해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 김영춘, 오영식, 김부겸 의원 등 재선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당 결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느냐... 떠나느냐...

광주·전남 與 의원들 깊어가는 고심 이영호 의원 일단 당 잔류 방향 선회

열린우리당이 친노(親盧) 계열의 사수와 비노(非盧) 계열인 통합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당 잔류와 탈당을 둘러싸고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사실상 여당을 떠난데다 대선을 앞두고 통합신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에서 대통령을 명분으로 한 탈당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당을 떠난다고 해도 복잡하게 얽힌 정국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지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 열린우리당 당적을 보유한 이영호, 서갑훈, 김성곤, 지병문, 김동철, 강기정, 정동채 의원 등은 그동안 친노 성향과 함께 당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통령을 명분으로 내걸고

탈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7일 중도통합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던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일단 당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역 여론이 통합신당 창당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날 창당한 중도통합신당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정국 상황과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탈당을 결행

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 가운데 이영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조만간 탈당의 수순을 밟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분간 열린우리당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과 친노 직계인 서갑훈 의원,

당내의 강경파로 분류되는 강기정, 지병문 의원 등은 당당 탈당을 결행하는 어려움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을 당시 비서실장을 맡는 등 측근 의원으로 꼽혔던 정동채 의원도 바다 이야기 파문 등과 맞물려 탈당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미 탈당 의사를 나타낸 이영호 의원과 그동안 꾸준히 통합 목소리를 높였던 김동철 의원은 조만간 당적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남지역 모 여당 의원은 “당장 탈당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소신을 지키다 보면 조만간 대통령의 길이 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도 너무한 외제차 ‘가격 거품’

美·日서 6천만원 車 한국선 1억6천만원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수입차시장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차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보다 최고 2.5배나 높게 책정되는 등 수입차의 ‘가격 거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는 4만53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005년(3만9010대)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수입차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4.1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는 달러 마진에 대한 애용과 소비자 불신 등이 포함 된 것이라며 ‘폭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별 자동차 가격 차이는 나라별로 자동차의 수입규모와 옵션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차값이 비싼 가장 큰 이유를 수입차 업체들의 고가 마케팅 전략으로 꼽고 있다. 수입차 회사들이 한국인의 과시형 소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소비자들은 물론 수입차 딜러들까지 가격 인하 움직임에 합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수입차시장 1위인 한국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하는 렉서스 LS460 L의 국내 가격은 1억6천300만원. 하지만 이 차는 미국에서 6천700만원, 일본에서는 6천600만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가격이 미국과 일본보다 무려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BMW도 최고급 모델인 ‘750Li’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1억8천52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7천400만원에 판매돼 1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600’은 국내에서 2억6천600만원에 판매되지만, 미국과 독일에서는 각각 1억3천200만원, 1억7천300만원 정도에 판매된다.

이처럼 한국의 자동차가 비싼 것은 높은 세금과 수입상·딜러 몫으로 분류되는 유통 마진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수입상 19%, 딜러 10% 등 29% 가량이 유통상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는 달러 마진에 대한 애용과 소비자 불신 등이 포함 된 것이라며 ‘폭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별 자동차 가격 차이는 나라별로 자동차의 수입규모와 옵션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차값이 비싼 가장 큰 이유를 수입차 업체들의 고가 마케팅 전략으로 꼽고 있다. 수입차 회사들이 한국인의 과시형 소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소비자들은 물론 수입차 딜러들까지 가격 인하 움직임에 합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수입차시장 1위인 한국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하는 렉서스 LS460 L의 국내 가격은 1억6천300만원. 하지만 이 차는 미국에서 6천700만원, 일본에서는 6천600만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가격이 미국과 일본보다 무려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BMW도 최고급 모델인 ‘750Li’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1억8천52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7천400만원에 판매돼 1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

盧대통령 정치 ‘권위주의 탈피’ 기여 뉴스위크 보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기여한 것은 대통령을 일반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에 있다.” 뉴스위크는 “언뜻보면 지지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노 대통령은 운이 없어 보였지만 이후 ‘권위주의 탈피’와 ‘양당제 확립’을 골간으로 한 한국 정치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진단하는 ‘돌아

올 수 없는 길(The Road of No Retur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뉴스위크는 “언뜻보면 지지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노 대통령은 운이 없어 보였지만 이후 ‘권위주의 탈피’와 ‘양당제 확립’을 골간으로 한 한국 정치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진단하는 ‘돌아

Very Good Tour advertisement featuring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including family packages, weekend packages, and business packages with prices and inclusion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listing various tour packages like 'Zangsa' and 'Simsang'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listing various tour packages like 'Goryeo Culture' and 'Simsang'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listing various tour packages like 'China/Japan/Southeast Asia' and 'USA/Canada'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listing various tour packages like 'Bangkok/Pataya/Royal Dragoon' and 'Spain/Portugal/Morocco'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and legal notices for the travel agencies.